

한국인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쌍꺼풀 주름의 종류에 대한 선호도 조사

박성규^{1,2}·정경인¹·최진영¹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성형외과학교실¹, 인제대학교 눈성형연구소²

The shape of supratarsal fold in double eyelid operation can be generally divided into two types: infold and outfold. Infold means that the double eyelid line commences beneath the medial epicanthus and extends wider laterally. Outfold means that the double eyelid line commences above the medial epicanthus and extends parallel to the lateral side.

In the case of the young Korean generation, the infold eyelids are recognized much closer to the natural-looking eyelid type. The statistics suggested that 68% of the 20s women had the infold type naturally. To the ordinary Korean people, the preferred one has been recognized as the infold which looks more natural because most of the unartificial double eyelids belong to the infold group. In addition, the survey by the before-operation images showed the tendency to prominently prefer the infold. This research was studied based on the target of 979 women among the random consultation-patients, whose ages are from 17 to 30 years old. The average age of the target women was 22.4. The preference study of these patients was conducted through showing various shapes of double eyelid made by a pin and referring them to the before/after-operation images of other patients. The eyelid shapes we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hree types. Infold, Inward fold and Outfold.

In this classification, inward fold means that the double eyelid line commences above the medial epicanthus and extends wider laterally.

The results of this survey suggested that inward fold accounted for the most, 421 persons(43.0 percent), followed by the Infold 296 (30.2 percent) and the outfold 262(26.8 percent). This result is opposite to the statistics that the ordinary people commonly prefer the infold type because the shape looks natural and unartificial.

Key Words: Double eyelid, Infold, Inward fold, Outfold

The Preferred Shape of Supratarsal Fold in 979 Double Eyelid Operation Candidates

Sung Gyu Park, M.D.^{1,2},
Kyung In Jung, M.D.¹,
Jin Young Choi, M.D.¹

¹Department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Seoul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Medical Center, ²Cosmetic Eye Research Institute

Address Correspondence : Kyung In Jung, M.D., Department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Seoul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Medical Center, 85-1 Jeo-dong 2-ga, Jung-gu, Seoul 100-032, Korea.
Tel: 02) 2270-0114, Fax: 02) 2275-5663,
E-mail: jki815@chol.com

I. 서 론

미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눈을 중심으로 보면 근대 들어 서구문명의 영향으로 밝은 표정을 보이는 쌍꺼풀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쌍꺼풀 수술도 흔하게 행해졌다. 눈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성형외과 의사에게 있어서는 일반사람들이 선호하는 쌍꺼풀의 모양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양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쌍꺼풀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한국인에서 쌍꺼풀의 출현 빈도는 약 40 - 5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¹⁻³

쌍꺼풀주름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안쪽주름(infold)과

바깥주름(outfold)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한국인에 있어서 자연형태의 쌍꺼풀은 젊은 사람일 경우 안쪽주름이 훨씬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대의 여성일 경우 안쪽주름이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¹ 실제로 수술을 통해 쌍꺼풀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들이다. 수술을 받기 원하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쌍꺼풀 주름의 종류는 좀 더 자연형태가 많은 안쪽주름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실제로 한국인에 있어서 선호하는 주름의 종류는 자연스러운 면이 있는 안쪽주름이라고 짐작해 왔다.³ 반면 통계에 근거한 한국인의 쌍꺼풀 주름의 종류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러가지 모양의 쌍꺼풀 그림과 다른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도 참조시킨 후 핀으로 여러가지 모양의 쌍꺼풀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환자의 쌍꺼풀 주름의 종류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쌍꺼풀 주름을 잡아 본 후의 쌍꺼풀 주름의 종류에 대한 선호도의 조사로 수술을 시행할 경우 현재 한국인들의 쌍꺼풀 주름 종류의 선호도와 미래의 선호도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가. 대상

1998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박성규 성형외과에 방문한 상담 환자 중 여성 9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은 17세 이상 30세 이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평균연령은 22.4세였다. 상담을 받은 환자는 모두 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미용적인 목적이었다. 눈이나 눈꺼풀 등에 질병, 외상, 변형, 기형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

나. 방법

핀으로 여러가지 모양의 쌍꺼풀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안쪽주름, 내향성주름, 바깥주름의 그림과 다른 환자의 사진도 참조시켜서 환자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쌍꺼풀 주름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1) 안쪽주름 형태: 쌍꺼풀 선이 안쪽으로 갈수록 작아져서 몽고주름에 가려 안 보이는 모양으로 정의하였다(Fig. 1).
- 2) 내향성주름 형태(일반인들 사이에서는 in-out 중간 형태로 통용되고 있다): 쌍꺼풀 선이 안쪽으로 갈

수록 작아지지만 몽고주름 위쪽으로 가는 모양으로 정의하였다(Fig. 2).

- 3) 바깥주름 형태: 쌍꺼풀 선이 눈 안쪽으로 가거나 바깥으로 가거나 비슷한 두께가 유지되는 모양으로 정의하였다(Fig. 3).

환자들과의 상담을 하면서 쌍꺼풀 주름의 종류를 위에 정의한 그림을 먼저 보여준 후에 다른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후에 실제로 환자를 대상으로 핀으로 각각의 쌍꺼풀 주름을 잡고 그 모습을 거울로 보여주었다(Fig. 4). 이때 사용했던 핀은 일반적으로 쌍꺼풀 주름을 잡을 때 사용하는 핀이었다(Fig. 5). 또한 각 형태의 쌍꺼풀 주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어서 선택에 도움을 주었다(Table I).

III. 결 과

쌍꺼풀 주름의 종류의 분류는 안쪽주름, 내향성주름,

바깥주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 환자가 선호한 선호도는 안쪽주름 296명(30.2%), 내향성주름 421명(43.0%), 바깥주름 262명(26.8%)로 조사되었다(Table II, Fig. 6).

상담 환자는 20세에서 23세까지가 약 50%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나이에 따른 쌍꺼풀의 선호도는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p < 0.05$). 조사 대상 전 연령에서 내향성주름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Fig. 7, 8).

IV. 고 찰

쌍꺼풀은 눈꺼풀 올림근이 결막과 눈둘레근을 뚫고 위눈꺼풀판 앞면의 피부 진피층에 붙어 눈꺼풀 올림근을 수축할 때 생기는 주름으로 동양인에서는 눈꺼풀 올림근의 넋힘줄이 피부까지 닿지 않기 때문에 쌍꺼풀이

잘 생기지 않는다. 실제로 한국인에서 쌍꺼풀 빈도는 약 4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서구문명의 영향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의 변화 및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쌍꺼풀 수술은 안성형 분야에서 가장 흔히 행해지는 수술이 되었다. 쌍꺼풀 수술 시 쌍꺼풀 주름의 종류에 대한 통계가 부족하여 그 모양의 결정은 술자의 주관이나 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다.

송우철 등¹은 쌍꺼풀 주름의 형태를 4가지로 분류했는데, 첫째 형태는 주름이 안쪽과 가쪽눈구석으로 들어가지 않고 떠있는 경우이고, 둘째는 안쪽과 가쪽눈구석으로 들어가 붙어있는 경우이며, 셋째는 가쪽만 붙어있는 경우이고, 넷째는 안쪽만 붙어 있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분류에서 첫째 형태는 이 논문에서 바깥주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넷째는 안쪽주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4가지 분류를 하였을 때 한국인들의 전체적인 분포는 남녀 모두 I형(47%)과 IV형(47%)이 가장 많았다. 반면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I형이 28%를 차지하였고, IV형이 68%를 차지하였다. 이를 볼 때 한국인에서는 자연형태의 쌍꺼풀은 전체 연령에서 보았을 때는 남녀 모두에서 안쪽주름과 바깥주름이 같은 비율로 존재하였다. 반면 20대 여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안쪽주름이 바깥주름의 2.5배 가량이 됨을 알 수 있다.

Ishikawa⁴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이별로 쌍꺼풀의 빈도를 조사하였는데 나이가 증가할수록 빈도가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쌍꺼풀의 형태도 안쪽주름에서 바깥주름으로 바뀌어 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번 논문에서 조사한 대상(30세 이전의 여성)에서 자연적인 형태의 쌍꺼풀은 안쪽주름이 많다는 것을 통계로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선호도와는 무관하지만, 수술을 고려하는 환자의 입장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려는 경향 때문에 안쪽주름을 선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박진우 등⁵은 쌍꺼풀 주름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하여 선호경향을 조사하였다.

- 1) parallel crease
- 2) discontinuous crease
- 3) multiple crease
- 4) nasally tapered crease
- 5) incomplete crease의 5가지다.

이 중 1번을 이 논문에서 바깥주름으로 볼 수 있으며, 4번을 안쪽주름으로 볼 수 있다. 20대 성인 남녀 각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선호경향에서 바깥주름(남: 61%, 여: 55%), 안쪽주름(남: 16%, 여: 33%)로 남녀 모두 바깥주름을 더 좋아하는 경향을 보였다.

Flowers⁶는 동양인에 있어서 쌍꺼풀의 주름에 대해 내안각주름보다 밑에서 시작하는 선보다는 내안각주름보다 위에서 시작하는 선이 미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하였다. 이는 안쪽주름보다 바깥주름을 미적으로 선호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적으로는 바깥주름이 우수하다는 주장이 많지만, 실제 수술 시 환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대한 통계는 없었다. 본 연구는 쌍꺼풀을 핀으로 잡아 보아서 수술을 받을 환자에게 쌍꺼풀 주름을 직접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사진도 보여주어 선택하게끔 하여 통계를 작성하였다.

우리가 분류한 세 가지 형태의 쌍꺼풀 주름의 종류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안쪽주름은 자연스럽고 붓기가 적고, 회복이 빨라서 빨리 자연스러워진다. 반면에 눈이 짧아 보이고 눈 사이가 멀어보이는 단점이 있다. 눈 안쪽이 답답해 보이는 면도 있다. 두 번째로 바깥주름은 눈이 길어보이면서, 눈 사이가 가까워 보이는 면이 있다. 눈화장을 했을 때 더 세련된 이미지를 주기도 한다. 눈모양에 따라서는 앞이 뚜렷하지 않은 모양이 되기도 하고 줄려보이기도 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바깥주름이 필요이상 커지면 미용적으로 후퇴하기도 한다. 셋째로 내향성 주름(일반인들에게 in-out 중간의 통용되기도 한다)은 바깥주름의 특징인 눈이 길어 보이는 특성도 가지고 있고, 세련되고 도회적인 느낌을 준다. 이러한 내향성 주름을 새로이 분류로 설정한 이유는 안쪽주름의 자연스러움과 바깥주름의 미적인 우수성을 혼합시키려는데 있다. 바깥주름이 눈꺼풀 틈새의 길이가 길게 보이거나 눈사이가 덜 멀어보이게 보완하는 특징을 지녔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쌍꺼풀 주름이라고 저자들은 생각했다.

본 연구는 핀으로 잡은 모양 위주로 조사한 내용이다. 내안각 주름이 강하여 내향성 주름이나 바깥 주름이 핀으로 잡히지 않거나 어색한 모양이 되는 경우는 안쪽 주름으로 결정하였다. 내안각 철허 성형술로 내안각 주름을 이완시켜서 내향성 주름이나 바깥 주름을 잡을 수 있다면 내향성 주름이나 바깥 주름의 선호도가 더 증가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쌍꺼풀 모양에 대해 상담하기 전에 두 가지 형태(안쪽주름과 바깥주름)의 쌍꺼풀 모양에 대한 그림만 보여준 선호도에서는 안쪽주름과 바깥주름의 선호도 비율에서 7:3 정도로 안쪽주름을 훨씬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위의 쌍꺼풀 선호도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한국 성인여성이 선호하는 쌍꺼풀의 주름의 종류는 첫째로 내향성 주름(43.0%)이었고, 둘째로 안쪽주름(30.2%)였고, 셋째로 바깥주름(26.8%)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내향성주름은 동양인의 눈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안쪽주름의 자연스러움과 바깥주름에서 볼 수 있는 시원하고 서구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Flowers가 주장한 동양인에 있어서 안쪽주름보다 바깥주름이 미적으로 우수하다는 주장과 일맥 상통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쌍꺼풀의 주름의 종류를 안쪽주름, 내향성주름, 바깥주름의 총 세가지로 나누었다. 여성 979명을 대상으로 수술 전 핀으로 잡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내향성주름이 가장 많은 분포(43%)를 차지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고 수술한 것 같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안쪽주름을 선호한다는 조사결과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개인의 선호도나 해부학적 차이에 따라 쌍꺼풀 수술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현재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쌍꺼풀을 감안하여 환자의 상담과 수술을 시행한다면,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1. 송우철, 박승화, 고기석: 정면사진을 이용한 한국인 눈의 계측 및 비계측학적 연구. *대한체질인류학회지* 15: 95, 2002
2. 김영호, 김용성, 이세일: 한국여성의 상안검에 대한 생체 계측학적 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2: 325, 1985
3. 서민성, 황건: 인물화에서 찾아본 한국인 성인 여자 쌍꺼풀의 빈도 및 형태: 대한민국 미술대전 1982, 1990, 2001년도 분석.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지* 8: 13, 2002
4. Ishikawa T: Frequency and morphological change of double eyelid fold in relation to age. *Hokkaido Igaku Zasshi* 70: 195, 1995
5. 박진우, 이병현, 정상기, 김재봉: 한국인의 상안검에 대한 형태학적인 고찰. *대한안과학회지* 41: 879, 2000
6. Flowers RS: The art of eyelid and orbital aesthetics: mul-

tiracial surgical considerations. *Clin Plast Surg* 14: 703, 1987

